

남구·광주도시공사 탁상행정애 애꿎은 농민만 피해

현장조사도 않고 80년전 지적도 토대 물 수혜면적 24ha로 공사
압촌동 저수지 '맹간제' 농업용수 고갈...양 기관은 책임 공방만
인근 농민 참여 합동회의 열고도 해결책 못찾아 농민들 한숨만

광주시 남구와 광주도시공사의 '탁상행정' 탓에 농사를 짓는 농민들만 울상이다. 두 기관이 광주시 남구 압촌동 인근에 '광주에너지밸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80년 전 지적도만을 토대로 저수지 공사를 설계하는 바람에 농업용 저수지 '맹간제'가 말라버렸기 때문이다. 행정청인 광주시 남구와 시공사인 광주도시공사는 해결책을 찾기는커녕 책임 떠넘기기를 이어와 농민들의 한숨은 더욱 커지고 있다. 광주시 남구에 따르면 최근 '맹간제 농업용수 고갈' 사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유관기관인 광주시 남구와 광주도시공사, 인근 농민이 함께하는 '합동회의'를 열었다. 회의결과 저수지 '물 고갈'은 양 기관의 탁상행정 탓에 발생했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것이 농민들의 주장이다. 광주도시공사는 공사를 위해 맹간제의 물리면적(보·저수지 등에서 물을 공급받는 토지의 크기) 자료를 남구에 요구했는데 남구는 80년 전인 1942년에 작성된 자료를 전달했다. 실제 맹간제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토지는 88.5ha에 달하지만, 해당 자료에는 맹간제의 물리면적이 24ha로 기록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양 기관은 실제 토지를 확인하지도 않고 80년 전 자료만을 토대로 공사를 설계·계획·실시했다는 것

이 농민들의 설명이다. 이 탓에 맹간제 수심이 급격히 낮아지자 광주시 도시공사는 2019년 관정 2개를 설치, 지하수를 끌어와 물을 채우기로 했으나 11일 현재 해당 관정들은 모두 말라버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양 기관은 서로 책임을 공방을 하며 해결책에 대한 예산까지 떠넘기고 있다. 합동 회의 결과 ▲대지2양수장 집수능력을 개선하고 ▲대지3양수장 부지내 양수장을 추가신설한 뒤 압송관을 설치해 물을 공급하는 등 대안을 시행하기로 뜻이 모였다. 광주시도시공사는 예산 15억 원이 드는 공사를 남구와 각각 50% (7.5억원)씩 부담해 추진하자는 의견을 남구에 제안했다. 애초에 남구에서 제대로 된 물리면적을 측정해 제공했다면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었으니 남구와 책임을 분담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남구는 광주시도시공사가 공사시행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공사비를 분담할 수 없다고 검토 결과를 회신했다. 남구는 80년이 지난 자료를 검토하지 않고 준 것은 잘못이지만 시행사인 도시공사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제대로 검토했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결국 두 기관의 책임 떠넘기기에 농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광주시 남구 압촌동 대지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이 바닥을 드러낸 농업용 저수지 '맹간제'를 보며 허탈해하고 있다.

현재 제시된 해결책으로 당장 물을 끌어오기 시작해도 5개월이 지나야 저수지에 겨우 물이 차는데, 공사 기간까지 포함하면 더욱 오래 걸릴 전망이다. 농민들은 "이대로라면 내년 5월 모내기도 힘들지 모른다"며 한숨을 쉬고 있다.

압촌동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윤 모씨는 "내년 모내기철이 오기 전에 해결이 안되면 농민들은 다 죽는다"며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는 법적으로 알아서 결정하고, 하루 빨리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 2016년부터 광주시 남구 압촌동 일원 93만2000㎡에 사업비 2978억 원을 들여 광주 에너지밸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글·사진=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신고했다며 협박·폭행 '보복 범죄' 잇따라

광주동부경찰 30대·60대 구속영장
과거 자신을 신고했다며 신고자들을 찾아가 보복성 협박·협박을 저지른 '보복 범죄' 피해자들이 잇따라 검거됐다. 광주동부경찰은 광주시 동구의 한 술집에서 보복성 협박을 한 A(39)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및 재물손괴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해당 술집의 50대 여성 업주를 성폭행한 혐의로 신고당해 2년 6개월 동안 복역한 뒤 올 7월 출소했다. 출소 직후 A씨는 업주에게 "나를 감빵으로 보낸

죄, 벌을 받아야겠다"는 등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으며 지난 3일 새벽에는 술집을 찾아가 욕설을 하고 가게 출입문을 부수기도 했다. 경찰은 누번기간 동안 범행한 점과 상습성 등을 고려해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과거 자신을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며 지인에게 주먹을 휘둘러 중상해를 입힌 B(62)씨도 폭행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8월 6일 광주시 동구 대인동의 클럽에서 지인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6주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오른쪽 눈 부위를 폭행당해 안구 관통상을 입고 시력을 잃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어머니 친구 흥기 찢러 살해

광주서부경찰 50대 남성 검거
사업자금을 구하기 위해 모친의 지인을 살해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광주시 서구 금호동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 A씨를 강도살

인 혐의로 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오후 4시 30분께 홀로 살던 피해자 B씨를 찾아가 흥기로 숨지게 하고 현금 7만 5000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에서 1인 기업을 운영 중인 A씨는 모친의 수십년 된 친구인 B씨로부터 사업자금으로 500만 원을 빌린 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 서구 모텔 사망 영아 부모가 장시간 방치 숨져 경찰 아동학대치사 혐의 입건

경찰이 광주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생후 5개월 된 영아의 부모를 입건해 조사중이다.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20대 초반 부모 A씨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아이를 장시간 모텔 방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8일 오전 6시 45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생후 5개월 된 아기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부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아이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모두 20대 초반인 아이 부모는 지난 1일부터 해당 모텔에서 숙박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에 거주하던 이들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광주로 와 야간 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텔에 아이를 홀로 뒀던 부모는 일을 마치고 모텔에 복귀해 숨진 아이를 발견하고 신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학교시설 관리 맡겼더니 여교사·여학생 불법촬영

영상 66건...피해자 76명 추산
광주동부경찰 20대 구속영장
학교시설 관리를 하던 20대 남성이 학교·교육기관을 돌며 여교사·여학생 등을 몰래 불법 촬영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동부경찰은 개인 휴대전화로 불법촬영하고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소지한 A(26)씨를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불법촬영물 소지,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9월 광주 시내 초등학교 1곳, 중학교 3곳, 교육기관 1곳 등 5곳에서 여교사와 여학생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만나 성착취물 동영상 찍고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 컴퓨터 수리·유지보수 회사 직원으로 취직해 학교와 교육기관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종이상자에 녹화 기능이 켜진 휴대전화를 넣어 학교 및 교육기관의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선반 등에 놓아두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휴대전화를 가방에 숨겨 학생들의 치마속을 촬영하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지난달 19일 동구의 한 중학교 조리실 직원이 학교 샤워실에 설치된 휴대전화를 발견해 신고하면서 발각됐다. A씨는 현장에서 검거돼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한 경찰은 총 2TB(테라바이트) 용량의 불법촬영 영상 66건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총 76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 8월 SNS로 알게 된 13세 미만 초등학교생을 상대로 성관계를 맺고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 소지한 점도 추가로 발견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피해자 수와 여죄를 조사할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덕남동 임야, 투자 하실분

- 임야 200평,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도로접함, 개발호재 많음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400만원(조정가)

문의. 010-3605-5000

상가, 신축부지 매매

1. 대인동 156평, 롯데백화점 옆
신안동 176평, 엄마요양병원 뒤
2.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득
타용도 변경가, 위치 좋음
3.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중
4. 매매 - 23억, 26억
5. 공동투자 하실분 모심

문의. 010-3605-5000